

박용우 올린 영화 '카센타' "감히 내 작품의 팬 됐죠"

"감동으로 시작해서 감동으로 끝나는 영화"



"감히 내 작품의 팬이 됐어요."

배우 박용우가 지난 2016년 개봉한 영화 '순정' 이후 약 3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했다. 그의 복귀작은 블랙코미디 장르의 '카센타'.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이기도 한 '카센타'는 박용우의 거친 연기 변신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박용우는 '카센타' 관련 인터뷰에서 "감히 내 작품의 팬이 됐다"며 작품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정동의 한 카페에서는 영화 '카센타' (감독 하윤재)의 주연 조은지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카센타'는 파리 날리는 국도변 카센터를 운 영하고 있는 재구(박용우 분)와 순영(조은지 분)이 펍크 난 차를 수리하며 돈을 벌기 위해 계획적으로 도로에 못을 박게 되면서 벌어지는 한국형 생계범죄 블랙 코미디 영화다.

극 중 박용우는 한 성격 하는 국도변 카센터 사장 재구 역을 맡았다. 재구는 우연히 도로 위에 떨어진 금속 조각에 펍크 난 차량을 고치게 되고 이후 계획적으로 도로 위에 날카로운 못을 놓고 타이어 펍크를 유도하게 된다. 그러다 욕망과 야심 앞에서 갈등하게 되는 인물이다.

앞서 박용우는 지난 13일 진행된 언론시사회 당시 "처음에는

작품 출연을 거절했었다"고 밝히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용우는 "처음에 이 영화를 딱히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감독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다. 궁금한 게 많아서 감독님을 뵈었는데 처음 감독님 뵈는 때는 '들으시는 분이 아니구나, 자기 고집만을 얘기하는 분이구나' 했 나"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나 감독이 다시 보낸 시나리오가 박용우의 마음을 바꿨다. 그는 "그리고 나서 여행을 떠났는데 그렇게 만나 뵈고 열흘 정도가 지난 것 같다. 메일로 시나리오를 보내주셨다"며 "읽어봤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90%가 반영이 됐더라. 디테일한 것까지 다 반영돼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래서 '감독님이 제 얘기를 들으셨구나, 오해하고 있었구나' 했다. 여행 다녀와서 만나 뵈는데 표정이 다르더라. 너무 좋은 감독, 사람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좋다. 너무 예의가 바른 분이더라"고 말했다.

박용우는 "감독이 왜 재구 역할에 박용우를 캐스팅했을까"라는 질문에 "모르겠다. 저도 가끔은 바보스러운 정도로 맹목적으로 신뢰를 갖는 사람들이 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조은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지만 배우로서는 보자마자 좋

았다. 굳이 얘기하자면 감독님도 (박용우라는 배우에 대해)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라고 답했다.

'카센타'에 대한 깊은 애정도 털어냈다. 박용우는 "제가 출연했지만, 아예도 '감히 이 영화의 팬이 됐다'고 했는데 저를 잊어 버리고 영화를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년간의 컴백에 대해 "당연히 저도 아무리 자유롭고 창의적인 파트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카센타'는 감동으로 시작해서 감동으로 끝나는 영화인 것 같다"며 "계산적으로 생각해서 출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3년 전 영화 '달콤 살벌한 연인'으로 호흡을 맞춘 조은지에 대해서는 "정말 보자마자 좋았다. 직접적으로 만난 건 '달콤 살벌한 연인' 때였고 처음 본 것은 인상수 감독님의 '눈물'에서였다. '눈물' 오디션 영상을 봤는데 인상이 강렬했다. 그 친구의 대사를 잊을 수 없더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박용우는 "그때 그 친구의 슬픔을 봤다. 그 영상에서 울거나 슬픈 얘기를 한 게 아니었는데 인상이 너무 강렬했다. 그게 오래 남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배우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공인이라고 생각지 않지만 관심과 사랑을 받는 직업이고,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에게 성격적이고 환경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털어냈다. 또 그는 관객이 되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했다. 박용우는 "신인 감독들과 작업하면 더 조심하려 한다"며 "사실 관객이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한다. 살면서 그 소리는 죽을 때까지 안 듣고 싶다. 최대한 말은 안 하고 지갑을 많이 열려고 한다"고 고백했다.

한편 '카센타'는 오는 27일 개봉한다.

뉴스

손담비 "인생 캐릭터 만난 것 같아...얼떨떨"

KBS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손담비의 재발견' 평가



손담비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동백꽃 필 무렵' 손담비가 뜨거운 호응에 보답하는 인터뷰 영상을 남겼다.

14일 손담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KBS 2TV 수목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극본 임상춘, 연출 차영훈 강민정)에서 향미 역을 맡은 손담비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손담비는 망한 표정과 무뎠던 말투로 팩트 폭격을 날리는 까멜리아 아르바이트생 향미로 등장해 신 스타일 활약을 톡톡히 했다. 극

후반부에는 세상의 편견에 갇혀 상처 가득한 삶만 살다가 죽음을 맞는 모습을 절절한 감정연기로 그려며 공감을 이끌어내며 '손담비의 재발견'이라는 평을 얻기도.

공개된 영상에서 손담비는 인생 캐릭터를 만났다는 평을 얻은 것에 대해 "되게 얼떨떨하다. 처음에는 잘 믿기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정말 인생 캐릭터를 만난 것 같다. 감사하다는 인사 꼭 드리고 싶었다"고 진심을

가득 담은 소감을 밝혔다.

향미 캐릭터를 위해 신경 쓴 부분에 대해서는 "캐릭터의 가난한 상황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뿌리 염색을 하지 않은 머리와 까진 매니큐어와 같은 디테일을 신경 썼음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땀 한 캐릭터다 보니 대화하는 상대를 보는데, 그 사람을 보고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려고 많이 연습 했다"며 세심하게 준비한 면면을 전했다.

또한 손담비는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대사로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던 마지막 인사신을 명장면으로 뽑으며 "제일 많이 울고, 가슴 아파하면서 촬영을 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밝히기도.

'동백꽃 필 무렵'은 손담비가 '미세스캅' 이후 3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컴백한 작품이다. 그간 쌓아온 연기 내공을 터트리며 시청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한편 손담비는 모습은 수, 목요일 오후 10시 '동백꽃 필 무렵'에서 계속 만나볼 수 있다.

뉴스

뉴이스트 황민현, 첫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 성료

그룹 뉴이스트 황민현이 첫 번째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를 마무리한 소감을 밝혔다.

민현은 지난 8월24일부터 신도림 디큐브아트센터에서 진행된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에서 마리 앙투아네트를 사랑하는 매력적이고 용감한 스웨덴 귀족 악셀 폰 페르젠 백작' 역으로 변신해 성숙해지고 다채로워진 표현력으로 성공적인 뮤지컬 첫 데뷔를 알렸다.

약 3개월 동안 수 많은 공연을 소화하며 매 회차를 거듭할수록 놀라운 성장세를 보인 민현은 첫 번째 뮤지컬임에도 '페르젠' 역할을 새롭게 재해석, 관객들을 매료시키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민현은 극 중 '마리 앙투아네트'와의 애절한 케미스트리를 선사하며 한층 섬세해진 감정 연기와 탁월한 표현력까지 더해져 모든 장면에서 이목을 사로 잡는 모습으로 호평을 얻었다.

이에 민현은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14일 "첫 뮤지컬에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어서 매 순간이 너무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았다"며 "제 도전에 끊임 없이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제가 '황르젠'이라는 역할을 완성시킬 수 있던 것 같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연을 보러 오주신 모든 관객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갓세븐 잭슨, 솔로 앨범 美 빌보드200서 32위

GOT7(갓세븐) 잭슨이 솔로 앨범으로 'Billboard 200' (빌보드 200) 32위에 오르는 등 미국 빌보드 10개 차트에 진입했다.

지난달 25일 발매한 솔로 앨범 'Mirrors' (미러스)는 지난 5일자 빌보드 메인 차트인 'Billboard 200' 32위를 차지하며 솔로 가수 잭슨의 글로벌 영향력을 알렸다.

또 'Mirrors'는 'Billboard Independent Albums Chart' (빌보드 인디펜던트 앨범 차트) 1위를 비롯해 'Billboard Rap Album Sales Chart' (빌보드 랩 앨범 세일즈 차트) 2위, 'Billboard Digital Albums Chart' (빌보드 디지털 앨범 차트) 3위에 올랐다.

이 밖에 'Billboard Top Album Sales Chart' (빌보드 톱 앨범 세일즈 차트), 'Billboard Top Current Albums Chart' (빌보드 톱 커런트 앨범 차트), 'Billboard Top Rap Albums Chart' (빌보드 톱 랩 앨범 차트), 'Billboard Top R&B/Hip-Hop Albums Chart' (빌보드 톱 R&B/힙합 앨범 차트)에서도 상위권에 랭크했다.

MEGABOX 광주첨단점

| | |
|----|--|
| 1관 | 좀비랜드:더블 탭 |
| 2관 | 엔젤 해즈 폴른 |
| 3관 | 신의 한 수:귀수편 |
| 4관 | 블랙머니 |
| 5관 | 신의 한 수:귀수편, 82년생 김지영, (더빙)마법안개의 비밀:황금 보물선을 찾아라 |
| 6관 | 터미네이터:다크페이트 |
| 7관 | 블랙머니 |
| 8관 | 블랙머니, 82년생 김지영 |
| 9관 | 신의 한 수:귀수편 |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쌍암동)

CGV* 광주하남점

| | |
|----|---------------------------------|
| 1관 | 신의 한 수-귀수편, 아담스 패밀리 |
| 2관 | 신의 한 수-귀수편, 82년생 김지영, 어쩌다 룸메이트 |
| 3관 | 신의 한 수-귀수편, 좀비랜드-더블 탭, 어쩌다 룸메이트 |
| 4관 | 블랙머니 |
| 5관 | 터미네이터:다크페이트, 엔젤 해즈 폴른 |
| 6관 | 블랙머니, 아담스 패밀리 |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